

2010.07.19 미래정책연구실

## □ USDA, 경기부양법안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식품 시스템 지원 계획 발표

### 1. USDA (2010.07.12) 주요 내용

- 미국 농무부 Vilsack 장관은 경기부양법안에 따라 지역 식품 시스템(농산물 생산-가공-유통 등 식품과 연관된 일련의 체계) 지지를 통한 농촌경제 강화를 위해 9개 주 11개 사업 분야에 투자한다고 발표함. 농촌개발부 차관 Victor Vasquez는 Vilsack 장관을 대신하여 '국가농촌경제개발자협회 컨퍼런스'에서 이와 같이 발표함.
  - Nebraska주 Garden Fresh Vegetables의 온실 확장, Oregon주 Torii Mor Winery의 경영부채 경감 및 자금 지원을 통한 일자리 보전 등 총 9개 주 11개 사업 분야에 각각 100만~90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함.
  - 이러한 농민과 식품 소비자 간의 연계 강화를 통해, 생산자에게는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고, 소비자에게는 건강하고 영양이 있는 식품에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힘.
- 이러한 발언은 USDA의 "Know Your Farmer, Know Your Food" 캠페인에서 비롯된 것으로, 이는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고, 지역 식품 시스템을 홍보함으로써 농촌지역의 경제적 활력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. 또한 전국적으로 우리가 먹는 음식이 무엇이며,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관심을 환기함으로써, 농식품 생산자들에게 모든 이익이 돌아가도록 도움을 주고자 함임.
- 이 발언에서 언급된 사업은 USDA 농촌개발국의 B&I(Business & Industry) Loan Program에서 지원되는데, 이는 경기부양법안에서 지원하는 1억 5천7백만 달러로 조성되었으며, 농촌경제활성화 및 지역커뮤니티 지지를 위해 지원되는 자금임.

- B&I Program은 개인사업자, 협동조합, 비영리법인, 그 외 공익적 단체 등 신청할 수 있으며,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현재의 경기 침체로 인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건불리지역을 위해 조성된 자금임.

### 2. 시사점

- 지역의 식품시스템(생산-가공-유통)에 활력을 불어넣어 고용지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농촌지역 경제도 활성화하는 USDA 농촌 개발국의 B&I Loan Program은 우리 농업 농촌의 지역특화사업에 좋은 시사점을 줌.
  - 우리 농업 및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특화사업을 강화하는 시스템적 접근(생산-가공-유통을 아우르는 접근) 필요

## □ 자연 자본(Natural Capital)을 통한 경제적 이익 창출

### 1. CNN (2010.07.13) 주요 내용

- 최근 발표된 "Economics of Ecosystems and Biodiversity(TEEB)"의 연구에 따르면, 생물학적 다양성을 보전함으로써 기업의 이익이 창출될 수 있다고 발표함.
  - UN 환경계획의 녹색경제이니셔티브(UNEP Green economy initiative) 대표 Pavan Sukhdev는 그동안 고려하지 않았던 생물학적 다양성의 경제적 중요성(생물학적 다양성을 자연자본(Natural Capital)으로 까지 묘사)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언급함.
- <시장규모 확대> TEEB의 Business Report에 따르면, 2020년 환경 인증 임산물(Certified forest products)시장은 200%, 유기농 제품의 시장 규모는 4배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함.
- <소비자 선호도 변화> 기업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생물학적 다양성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음.

- TEEB의 또다른 설문조사에 의하면, 60% 이상의 미국과 유럽 소비자, 90% 이상의 브라질 소비자가 생물학적 다양성 감소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.
- 또한 80% 이상의 소비자들이 제품의 원료 조달에 있어 도덕적 결함이 있을 경우, 구매를 중단하겠다고 응답함.

○ <CEO들의 인식 변화> IUCN의 수석연구원인 Joshua Bishop은 앞으로 환경적 요소를 의사결정에 반영하지 않는 기업은 소비자의 관심과 경영 이익 모두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. 또한 현명한 경영자는 생태계 보전과 생물학적 다양성 보존에 동참함으로써 상당한 비용 절감과 새로운 이익을 창출하여 보다 지속가능한 21세기 사업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함.

- TEEB의 조사 결과, 라틴아메리카의 CEO 50% 이상, 아프리카의 CEO 45% 이상이 사업 확대에 따라 생물학적 다양성이 감소한다고 응답한 반면, 서유럽의 경우에는 20% 미만의 CEO만이 위와 같이 응답함.
- UN 책임투자원칙(PRI: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)의 의뢰로 영국의 컨설팅업체 TruCost에서 부정적 환경 효과를 추정한 결과, 세계 상위 3,000개 기업의 합이 연간 2.2조 달러에 달함.

## 2. 시사점

○ 친환경 비즈니스(Eco-Friendly Business)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므로, 향후 국내 농관련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수립 및 운용에 시사하는 바가 큼.